

‘T자형’ 새 스마트폰 나온다



돌리는 폰, 내일 첫 출시
15일에는 美서도 선보여

“T자 형태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두드린다.

LG전자는 6일 ‘LG Wing’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3사와 자급제 채널을 통해서다.

이어서 오는 15일에는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을 통해 현지 시장에도 판매를 개시한다.

LG전자가 LGwing을 한국과 미국 시장에 먼저 내놓는 이유는 2개 시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첫 번째 제품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고객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LGwing은 6.8인치와 3.9인치 올레드



LG전자는 LGwing을 국내와 미국에 출시한다. /LG전자

디스플레이를 겹쳐놓고 전면 디스플레이를 회전시키는 형태의 새로운 스마트폰이다. 바 타입의 편의성과 스윙블 모드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모두 제공한다.

가격 정책도 파격적이다. 국내 출시 가격이 109만8900원으로, 신규 폼팩터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 전용 케이스

와 C타입 이어폰도 기본으로 제공한다.

LG전자 신재혁 모바일마케팅담당은 “‘LG Wing’의 스윙블 모드를 한번 사용해 보면, 기존 스마트폰이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라며 “더 많은 고객들이 ‘LG Wing’만의 사용 편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갤S20 울트라’로 촬영한 영화 공개

삼성전자

오늘 왓차 통해 ‘하트 어택’ 상영

삼성전자 ‘갤럭시 S20 울트라’로 촬영한 영화가 온라인으로 상영된다.

삼성전자는 5일 왓차를 통해 단편영화 ‘하트 어택’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저녁 7시에는 삼성 모바일 트위터 라이브로 감독과 주연배우가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하트 어택은 이충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배우 이성경이 주연을 맡은 작품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 시간을 돌리는 판타지 로맨스 영화다. 영화 아가씨와 럭키 등으로 알려진 용필름도 제작에 참여했다.

이 영화는 영화 촬영부터 예고편, 메이킹 필름, 포스터까지 모두 갤럭시 S20 울트라를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강조하는 글로벌 단편영화 프로젝트 ‘Filmed #withGalaxy’의 첫 번째 작품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영화 제작자들은 ‘프로 동영상 모드’와 ‘슈퍼 스테디’를



하트 어택 촬영 장면. /삼성전자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만으로 촬영했는지 알기 어려울 만큼 높은 영상미와 독특한 촬영 기법,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구현했다.

이충현 감독은 “하트 어택은 사랑스러운 반전이 숨어 있는 로맨스 영화”라며 “큰 카메라 장비로 할 수 없는 앵글이나 움직임들을 ‘갤럭시 S20 울트라’로 잡아내면서,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 이 영화에 담긴 촬영기법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한번쯤 따라하고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LG U+서 ‘wing’ 구매하면 최대 119만원 혜택”

통신비 할인, 캐시백 등 마련
사전예약 혜택 공유 이벤트도

LG유플러스는 오는 6일 출시되는 LG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LG Wing (wing)’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해 최대 118만9540원의 혜택을 준비했다고 4일 밝혔다. LG wing은 6.8인치 메인스크린 외에 3.9인치 확장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이형(異形) 스마트폰으로, 출고가 109만8900원이다. ‘잡별 모션 카메라’ 기능을 탑재해 부드러운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LG wing과 함께 신한 스마트플랜 Plus카드(해의검용 마스터카드)를 신청하면, 매달 2만원 통신요금(전월 카드실적 70만원 이상, 온라인·오프라인 포함)과 11만원 캐시백을 합쳐 최대 59만원을 청구할인으로 받을 수 있다.

또 포인트파크 제휴사 포인트로 LG 유플러스 휴대폰 할인권을 받고, LG 유플러스

플러스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거나 온라인 직영몰에서 사용하면 할부금 5만 원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24개월간 할부수수료를 포함해 매월 2만4000원을 납부하고 사용하면 최대 54만9450원을 보상해주는 ‘중고폰 가격보장프로그램-WING’도 있다. 월 이용요금은 별도이며, U+멤버십 등급과 이용 중인 5G 요금제에 따라 월 이용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5G 시그니처, 프리미어 슈퍼, 프리미어 플러스 요금제에 가입하고 스마트기기팩을 선택하면, ‘U+ 리얼클래스(출고가 69만9000원)’를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LG wing으로는 U+프로야구, U+골프 등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생중계를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 중계 영상은 큰 화면으로 보고, 선수정보나 시청자간 채팅은 보조화면으로 할 수 있다. 3D AR콘텐츠로 영어회화를 볼 수 있는 U+아이들생생도서관, LG유플러스의

대표 키즈서비스인 U+아이들나라도 LG wing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말까지 LG wing을 구매하면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베스트 오브 구글’ 5G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모션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최대 3개월 ▲구글 원 100GB 멤버십을 최대 6개월 체험 ▲구글플레이 포인트 600포인트 및 골드 등급으로의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오는 5일까지 LG wing을 LG유플러스의 공식 온라인몰에서 사전예약하면 ▲Goldstar 레트로 패키지 ▲12개월간 매월 최대 1만5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되는 유샵전용 제휴팩 ▲유샵기프트-브리즈 Inbuds TWS3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용혜택이 제공된다.

또 사전예약 혜택을 공유하는 고객 10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LG 시네빔(20명),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기프트콘(980명)을 선물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캐딜락 CT4와 CT5 차량이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를 주행하고 있다. /캐딜락

‘영앤리치’ 노리는 캐딜락 세단의 존재감은 그대로

자동차 시승기 캐딜락 CT4·CT5

‘영앤리치’. 가장 인기가 많은 소비층.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들을 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캐딜락도 마찬가지다. 디자인 콘셉트부터 이름 체계까지 젊은 감각을 대폭 반영하며 예전보다 깔끔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쌓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CT4와 CT5는 그 정점에 선 모델이다. 새로운 이름과 함께 젊어진 디자인 철학을 담은 콘셉트카 ‘에스카라’를 꼭 빼놓은 외관, 특히 높은 주행 성능으로 영앤리치에 한 걸음 다가가는데 성공했다.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이들 모델을 만나봤다. 서킷에서 치러진 행사인 만큼 얼마나 잘 달리느냐를 주의 깊게 살펴봤지만, 얼마나 젊어졌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봤다.

추진력은 둘다 발군이다. 2L 트윈 스크롤 터보엔진을 함께 써서 최고출력 240마력에 35.7kg·m를 낸다. 터보랙을 최소화한 데다 낮은 RPM에서 최대토크를 낼 수 있어서 작은 반응까지 잘 소화해냈다.

운전성도 달리고 싶게 만들었다. 요즘 신차들과는 달리 아날로그 계

기반을 사용했고, 패들시프트도 달렸다.

그래도 모델별로 성격은 다르다. 제원상으로는만 봐도 CT4는 전후 무게를 5:5로 배분한 RWD 플랫폼을 사용했고, CT5는 8단변속기가 아닌 10단 변속기를 조합했다는 차이가 있다. 공차 중량도 각각 1600kg, 1700kg대다.

차이는 헤어핀 구간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CT4는 빠른 속도로 코스를 진입하는데도 매끈하게 돌아나갔다. 반면 CT5는 깊은 코너에 다소 밀릴 수 밖에 없었다. 짐카나에서도 CT4는 깊숙한 코너링을 이어가는데도 크게 밀리지 않았다. CT5는 일부 구간 버거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신 CT5는 직선 구간에서 발군의 성능을 보였다. 매끄러운 변속으로 순식간에 170km/h 이상을 달려 나갔다. 반면 CT4는 고속상태에서 다소 무거운 느낌을 줬다.

상품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CT4는 스포츠 세단, CT5는 럭셔리 세단을 각각 표방하고 있는 만큼 차량 성격에 따라 분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

가격 경쟁력도 높다. 모두 5000만원 안팎에 판매되는데, 동급 럭셔리 세단과 비교하면 높지 않은 편이다. /김재용 기자

르노삼성, XM3·QM6 등 10월 파격 프로모션

무상보증연장, 구입비 지원 등 혜택

르노삼성자동차가 10월 한 달간 신차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매 혜택과 할부 프로그램을 담은 파격적인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XM3와 QM6, 마스터 등 다양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4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프리미엄 디자인 SUV XM3 TCe 구매 고객에게는 무상 보증연장(5년/10만km)과 30만원 상당의 구입비 지원(옵션, 용품) 또는 60만원 상당의 구입비 지원(옵션, 용품) 혜택 중 하나를 제공한다. XM3 G Te 구매 고객은 30만원 상당의 구입비 지원(옵션, 용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르노삼성 QM6.

여기에 XM3를 할부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최대 36개월간 금리 3.5% 또는 최대 72개월간 금리 3.9%의 저금리 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월 상환 부담을 줄이고 만기 시 차량, 차량 반납, 할부 연장 등을 고객의 상황에 맞춰 선택

할 수 있는 스마트 할부 프로그램(36개월까지 금리 4.9% 또는 60개월까지 금리 5.5%)도 이용할 수 있다.

더뉴 SM6 구매 고객에게도 최대 100만원 상당의 구입비 지원(옵션, 용품, 보증연장) 혜택과 함께 저금리 할부 혜택(최대 36개월간 금리 1.9% 또는 최대 72개월간 금리 2.9%)을 제공한다.

QM6 구매 고객은 최대 200만원 상당의 구입비 지원(옵션, 용품, 보증연장) 또는 현금 최대 50만원의 지원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SE/BOLD 에디션 제외), QM6 BOLD 에디션 구매 고객에게는 50만원의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